

# “삼전 파업·CU 사태 노봉법 탓?”… 왜곡도 넘은 국힘

송언석 “정부 친노조 정책에 산업현장 대혼란”  
장동혁 “편의점주·취업난 청년이 피해자” 부채질  
민주 “희망 대한민국 안전망 호도 말라” 맹비난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왜곡 행태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 CU 물류 파업 등의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한 법이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고성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 n분의 1 방식으로 1인당 6억 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과거 단 28분 정전으로 500억 원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 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노조 약 14만 600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며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서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성 인정이 90% 이상 나오며,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거대 양대 노조는 노조 정상화의 기본인 회계 공시 제도마저 폐지하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 눈치를 보며, 이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며 “노조가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 근로 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별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면 삼성전자 노조가 상여금을 관철을 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수많은 하청업체, 협력업체들도 똑같은 수준의 상여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노조가 기업을 해체하는 나라,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겠는가”라며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물론 CU 편의점 물류 사태 역시 ‘노란봉투법’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6일) SNS에 “CU 편의점 사장님들은 삼각김밥도 못 팔고 하루 몇 십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 삼성 주주들은 노조의 7억 성과급 요구에 맞출 집회까지 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청년들은

줄어든 알바 자리, 실종된 일자리에 분노하고 있다”며 “모두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다”며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들의 권리는 검은봉투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갈등, 노노갈등,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노란봉투법’의 역습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을 겨냥 “노동 현장에 모든 문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 안성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란봉투법은 기술인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법”이라며 “기업의 과도한 손해 요구,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와사가 함께 상생하면서 더 큰 희망의 대한민국

을 만들자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배송노동자 사자회’에서 “아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사건을 또 다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악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4월 10일 현재, 총 372개 원청 사업장 중 1011개의 교섭요구가 있었고 평균 3개 미만”이라며 “대기업 한 곳이 수백, 수천 개 의 노조 교섭에 시달려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마저 노란봉투법 반대를 위해 활용하는 비윤리적 행태는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 與 원내 백해런도 불출마 한병도 ‘연임 도전’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한병도 의원 추대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한 의원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백해런 의원은 2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SNS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박정 의원도 원내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26일 SNS에 “국정조사위원장으로, 법사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원내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당 일각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에 “원내대표 연임은 지금 필요한 여당의 역동성과 활력에 반한다”며 “민주당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6일 치러진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 부산 북갑 하정우 35.5%·한동훈 28.5%·박민식 26%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24~25일 부산 북갑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 대상 조사  
부산 APIS 방식 진행(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p, 응답률 90.0%)



39.3%, 국민의힘 후보 34.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가입자 리스트로부터 무작위 추출해 무선 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응답률은 90.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스카이 만평

김용덕



### 보수 후보 단일화 찬 37·반 46% 河, 오차범위 밖 野 후보 앞서

63 부산북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하 수석 지지율이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모토가 뉴스토크마토 의뢰로 지난 24일~25일 부산 북갑구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만약 6월 북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다음 세 인물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질문에 전체 민주당의 하 수석이 35.5%의 지지를 얻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28.5%)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

렸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은 26.0%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하 수석이 70.0%를 얻어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보수층에서는 박민식 42.2%, 한동훈 38.4%로 표가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하 수석에 79.9%의 지지를 보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박 전 장관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거 주요 변수로 떠오른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응답자의 37.7%는 찬성했고, 46.3%는 반대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 맞붙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응답자의 50.1%가 전 의원을 선택했다. 박 시장은

40.3%였다.

성별로는 여성층에서 전재수 49.6%, 박형준 39.1%로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전재수 55.7%, 박형준 32.2%), 40대(전재수 59.6%, 박형준 31.1%)에서 전 의원이 앞섰다.

정치성향별로 진보층(전재수 79.4%, 박형준 14.9%), 중도층(전재수 52.7%, 박형준 34.4%)에서 전 의원이 우세했고, 보수층(박형준 63.4%, 전재수 28.4%)에선 박 시장이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질문에 긍정 54.8%, 부정 35.2%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사이 격차는 19.6%p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투표 생각 없음’은 7.5%에 그쳤다.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계획인지’ 질문에 민주당 후보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년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에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 원스 어본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